

중국신문학과 니체철학

- 郭沫若과 茅盾의 니체사상 수용을 중심으로

고 혜 경
(경희대학교)

1. 들어가는 글

19세기 철학에 한 획을 그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¹⁾는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기독교 사상과 도덕주의에 의해 지배되어온 유럽 문명의 몰락을 예고하며 전근대적 문명의 유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인자신의 존립과 완성을 위해 개인주의의 실현과 근대성의 동일화²⁾에 저항하는 ‘힘에의 의지’를 강조하며 ‘초인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진행해 가는 19세기 말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노동자계급의 격렬해져가는 저항 앞에서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종래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제창하였으며, 사회주의를 ‘노예도덕’으로 간주하고 지배계급의 독재지배를 ‘군주

1) F.W.Nietzsche, 1844-1900

2) 근대에 접어들면서 탄생된 학문과 사상들, 근대적 정치체제, 근대적 사회구조 등의 모든 것들을 동일성에 대한 회귀라고 환원시켜 생각할 수 있다. 즉, 중심이 되는 국가, 중심이 되는 사회, 중심이 되는 종교 속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흡수시켜 더 강한 중심을 만든다는 이론이다. 차이, 다양성, 개성 등은 이 중심 속에 묻혀버리고 같은 모습으로 동일화가 됨을 말한다.

도덕'으로 내걸어 '권력에의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에 섰다.

니체는 인간 심리에 대한 천부적인 통찰력으로 다양한 학설을 제기하며 기존의 철학, 종교, 도덕 등이 내세우는 진리의 이면을 파헤쳤고, 철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그들의 관점과 시각에 맞추어 니체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다면의 모습을 지닌 니체사상은 20세기 초, 많은 서구사상이 중국으로 밀려들어 왔을 무렵, 중국을 개혁시키고자 했던 젊은 지식인들에게 크나큰 환영을 받았다. 하나의 외래사조의 탄생과 영향력에는 어떠한 우연이나 맹목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늘 증명해오고 있다. 이것은 그 시대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 검증되고 선택되며, 전수자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기호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한다. 20세기 초 중국에서의 니체사상에 대한 수용은 당시 중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니체가 예고했던 반도덕주의의 출현과 니체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던 '초인'의 개념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이상으로 이해되면서 니체사상은 중국의 5.4시기 주류 속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평가되었고, 니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다면성을 지니게 되었다. 중국신문학작가들은 니체사상을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문화비판적이고 문학적인 관점,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비판을 오가며 그들만의 니체상을 만들어 냈다.

1902년 梁啓超가 『進化論革命者頡德之學說』³⁾에서 처음 니체를 소개한 이후 중국현지에서의 니체에 대한 이해는 시작되었다. 그 후 王國維의 『尼采氏之教育觀』⁴⁾ 등 니체에 대한 다채로운 소개와 논의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신문화운동과 함께 학계의 니체사상 논쟁열기는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으며, 니체 저작에 대한 번역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신문학 작가들 사이에서 니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니체저서의 번역의 성과가

3) 梁啓超는 이 글에서 니체의 개인주의는 19세기의 신종교라 일컬어지며, 마르크스주의와 함께 당시 독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떨치는 사상으로 소개하였다. (1902년 10월 16일 『新民叢報』 18호)

4) 王國維는 이 글에서 니체의 초인설과 천재론에 근거하여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문화의 새로운 정립을 논하였다. (1904년 3월 『教育世界』 71호)

매개체 역할을 하였고, 郭沫若과 茅盾이 이 번역작업의 선두에 나섰다.⁵⁾

국내 학계에서 魯迅의 니체사상 수용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지만, 신문학작가 郭沫若과 茅盾의 니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은 郭沫若과 茅盾의 니체사상에 대한 수용을 중점 분석함으로써 니체사상이 중국신문학에 끼친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함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주로 郭沫若과 茅盾이 번역한 저서와 이들이 소개한 니체에 관한 글들을 살펴보는 것이 논의의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5.4시기 전후 郭沫若과 茅盾을 중심으로 한 신문학작가들의 니체사상에 대한 해석과 평가, 그리고 수용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 또 이에 대한 그들의 유사성과 차별성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풀어놓은 글

1. 중국신문학과 니체사상

니체철학은 19세기 70년대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사실 생전에 니체는 독일계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했으며 종교계와 도덕주의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만 했다. 니체의 사상은 매우 과격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망 후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니체의 영향력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사물이나 사물의 속박을 초월하여 직접 느끼는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는 도덕을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강요된 도덕, 노예의 도덕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니체는 또 인간 자신 내부에서 나오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의 “신은 죽었

5) 이주노, 「魯迅과 近代思想」, 『중국현대문학』 제23호, 2002.12 참조.

다”라는 선언은 기존 종교의 가치 체계를 허물고 인간 본연의 가치체계를 세우고자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전근대적 문명의 유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권태로워지며 말초적인 쾌락을 원하게 되어 문화가 타락하게 되는 반도덕주의적인 현상에 반대하며 초인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였다.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 집단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 반인본주의적인 근대의 극복을 위해 그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맹목적 도덕주의는 위선으로 간주했다. 즉, 니체가 주장한 ‘신의 죽음’은 비합리적인 근대성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본주의, 인간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의 실현을 제시한 것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전통을 타파하고 새로운 가치와 신민화를 정립하고자 하였던 당시 중국의 5.4시기 지식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된 것이다.

陳獨秀와 蔡元培 등이 5.4이전에 니체학설을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니체에 대한 이해가 한걸음 진전하게 된 것은 노신이 『致「近代美術思潮論」의讀者諸君』에서 니체를 칸트, 그리고 마르크스와 함께 위대한 인물로 선정하고, 『文化偏至論』에서 니체사상을 소개하면서부터였다. 5.4직후 1920년대에는 니체의 저서가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초, 茅盾이 니체저작을 소개하는 글을 전반적으로 게재하였고, 같은 해 8월, 『民鐸』은 니체 특집호를 출판하였으며, 9월에는 『新潮』 제2권 제5기에 노신이 번역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설을 발표하였다. 1920년대 이루어졌던 주요번역의 성과를 살펴보면 당시 중국사상계에서 니체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인들은 낡은 봉건잔재사상에 맞서는 사상도구의 하나로 니체사상에 대해 자체적인 시각을 맞추어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瞿秋白이 『「魯迅雜感選集」序言』에서 노신을 평가했던 글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노신의 사상 근간은 니체의 ‘개인을 중시하고 물질주의를 배척했던’ 사상이었다. 이 사상은 유럽에서는 부르주아반동에 대한 반영으로 인식되었지만……당시 노신의 니체주의경향은 또 다른 사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⁶⁾이 글에서 瞿秋白이 지적한 ‘또 다른 사회관계’란 바로 5.4시기 물밑 듯이 밀려온 서구 사상들과의 충돌에서 빚어진

6) 秦川, 『郭沫若評傳』, 重慶出版社, 1993, 79쪽에서 재인용.

중국내 사회적 모순을 일컫는다. 니체는 전근대사에서 신성한 인물이나 학설로 추앙받던 전통의 가치를 과감히 파괴하고자 했으며, 현실사회의 모든 것을 다시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개인을 존중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당시 중국사회의 개인주의 사조와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茅盾은 『尼采의學說』의 결론에서 이에 대해 잘 요약해 주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단지 하나의 학설이고,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생활을 개선하고 진리는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러니 소개할 것은 소개하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며 심지어는 잊어버려도 무방하다.”⁷⁾ 이처럼 1920년대 번역물의 성과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수용한 니체사상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郭沫若과 니체사상

郭沫若에게 있어서 니체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내용과 색채로 가미되고 변형된 모습이다. 郭沫若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일본 유학시절 니체사상을 처음 접하고, 5.4이후에는 니체에 완전히 심취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1923년 5월부터 1924년 6월에 걸쳐 1년여 동안 그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제1부와 제2부의 1절을 번역하여 『創造周報』에 연재하였다. 그 후 그의 니체저서에 대한 번역작업은 중단되었지만, 일본 유학시절부터 1924년 말까지 근 10년이라는 시간동안 郭沫若은 니체사상의 매력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니체의 사상체계를 분산시켜, 넓은 봉건사상과 전통을 타파하고 부국강병을 취할 수 있는 관점만을 선택하고 수용하였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유정신을 발양하며, 기탄없이 도덕의 위선을 폭로하고, 종교를 비판하는 등의 니체사상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데에는 5.4시기의 시대정신이 주입되어 니체와는 다른 약간의 변형을 거쳐 5.4 애국청년의 이상적인 화신을 창조해 내었다.

郭沫若이 니체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7) 1920년 4월 「尼采의學說·結論」, 『學生雜誌』 제7권 4호.

첫 번째 단계는 5.4시기 신문화운동의 요구에 따라 니체의 자아발견과 개성해방, 그리고 현실저항과 천재론 혹은 초인론의 관점을 수용하고, 창조와 파괴의 이원론적 시각에서 ‘일체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 논리를 받아들였다. 郭沫若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번역할 당시, 니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자 하였다. “내가 번역한 니체가 바로 내가 이해한 니체이다”, “나는 하나의 거울로, 내 번역문은 단지 니체의 허상일 뿐이다” 그는 이 저서를 ‘위대하고 고결한 용사를 위한 말’, ‘지성과 정도의 저서’라 칭했다.

그는 또 니체와 중국의 노자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노자와 니체의 유사점은 이 두 사람 모두 신에 저항하고자 했던 종교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개성을 말살시키는 기성도덕에 저항하였다는 점, 그리고 개인본위사상의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⁸⁾ 이는 당시 郭沫若이 이해한 니체사상, 혹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저서의 진리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며, 그가 니체로부터 수용한 것은 ‘우상파괴’와 구도덕반대, 개성발현이라는 명제였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예란 무엇인가? 이는 모두 우리에게는 허위이고 썩은 것일 뿐이다.”, “오늘날의 모든 것은 이미 타락하고 영망이 되어버렸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겠는가. 내가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郭沫若과 중국 지식인들의 수천년간 사람을 속박해온 낡은 봉건예교에 대한 각성의 소리일 것이다. 郭沫若은 “우리와 같은 분노의 힘으로”, “일체의 우상을 내가 철저히 무너뜨릴 것이다!”며 선언하고, “초인철학을 만들어낸 미치광이, 신을 기만하고 우상을 파괴한 니체여!……만세! 만세! 만세!”라고 외쳤다.⁹⁾

“나는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 “나의 자유로운 숨결은 벽을 투과하고 감옥 앞까지 깊이 스며들어가, 감금된 모든 정신 속으로 침투한다.”는 니체의 글은 속박된 정신 속에 생활하고 있음을 통감하는 郭沫若에게 이를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갈망하게 하는 요인이

8) 「論中德文化書」, 『郭沫若文集』 제10권(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57쪽.

9) 郭沫若, 「匪徒頌」, 위의 책, 제1권, 22쪽.

되어주었다.

두 번째로 郭沫若은 니체가 숭배한 ‘주관적인 창조’ 사상에 매료되었다. “선과 악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먼저 파괴자가 되어야 하며, 일체의 평가를 산산히 부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고의 악이 최고의 선에 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이다.” 郭沫若 등이 참여한 문학사단 ‘創造社’의 글들은 곳곳에 ‘창조’라는 시대적 명제를 찬양하고 숭배하였고, 그들이 주관한 초기 간행물 『創造週報』, 『創造月刊』, 『創造季刊』등에도 ‘창조’라는 명제는 늘 함께 하였다. 『創造季刊』 제2권 제1기의 속표지에는 “형제들이여, 당신의 열정과 창조의 길이 고독한가, 정의란 약간의 사이를 두어야 당신을 따를 것이다.”¹⁰⁾라는 니체의 말을 커다랗게 인용하고 있다. 이는 초기 創造社가 추구하는 낡은 전통과 낡은 관습에 반항하는 창조적 표현의 정신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郭沫若은 시로써 “정신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법은, 자유롭게 창조하고, 자유롭게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존엄한 산과 웅대한 바다를 창조할 것이며, 일월성신을 창조하고, 풍운과 낙우를 섭렵하여, 광활한 우주에 온전히 나를 놓아 둘 것이다.”¹¹⁾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創造週報』 제1기에서 번역한 니체의 문장에서 인류는 오래지 않아 ‘너는 마땅히’라는 말에 얽매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너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해’라는 중압감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게 되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권력을 손안에 거머쥐어야 한다는 니체의 생각을 고스라니 그의 문학 작품 안에 담아 내었다. 니체의 ‘너는 마땅히’와 ‘내가 원하는 것’의 사상체계는 郭沫若의 여러 작품 안에서 농후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 그의 시집 『女神』의 「鳳凰涅槃」, 「天狗」, 「我是個偶像崇拜者」, 「匪徒頌」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天狗」¹²⁾를 살펴보자.

나는 유성이라!

나는 달을 삼켜버리고,

10) 니체, 「창조자의 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혜원출판사, 1990.

11) 郭沫若, 「湘累」, 앞의 책, 제1권, 46쪽.

12) 郭沫若, 앞의 책, 제1권, 54-55쪽.

나는 해를 삼켜버리고,
나는 모든 별을 삼켜버리고,
나는 전 우주를 삼켜버렸네.
나는 나일뿐 이어라!

나는 달빛이어라,
나는 햇빛이어라,
나는 모든 별빛이어라,
나는 광선이어라,
나는 전우주 에너지의 무게라!

나는 질주하네,
나는 울부짖네,
나는 타버리네,
나는 사나운 불길처럼 활활 타버리네!
나는 바다처럼 미친 듯이 울부짖네!
나는 전기처럼 날쌔게 질주하네!

나는 질주하네,
나는 질주하네,
나는 질주하네,
나는 나의 가족을 벗기고,
나는 나의 살을 먹고,
나는 나의 피를 빨고,
나는 나의 심장을 물어뜯고,
나는 내 신경 위에서 질주하네,
나는 내 척수 위에서 질주하네,
나는 내 근육 위에서 질주하네.

나는 나일뿐이어라,
나의 나는 폭발하려하네!

이는 수천년 간의 봉건전제의 정치억압과 자유억압 속에서 뿔어져 나온 계몽시대 개성해방을 향한 외침이었다. 노신의 『狂人日記』중의 광인과 함께 수천년 간 인간을 억압해온 ‘예교’에 대한 가슴 맺힌 한의 절규로, 인간을 억압하는 역사를 매듭짓고자 했던 투쟁선언이나 마찬가지로였다. 郭沫若의 『天狗』는 이러한 죄악에 휩싸인 전 우주를 모조리 삼켜버리고자 했으며, 전 우주를 삼켜버린 ‘나의 나’까지도 폭발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니체식의 주관적인 자아의 과장을 빌어 끝없이 분노하는 반항정신을 표출해 낸 것이며, 5.4시기 사상해방과 개성의 자유를 획기적인 창조의 시대정신으로 체현해 내었다.

郭沫若의 예술관은 의심의 여지없이 니체사상의 영향을 강렬히 받았다. 니체는 주신과 태양신으로 인류의 두 가지 심리적 경험을 상징하였는데 이는 예술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성적이고 정관적인 태양신의 정신은 태양신의 예술을, 그리고 정감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주신정신은 주신 예술을 탄생시켰다. 전자는 객관적이며, 후자는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니체의 『비극의 탄생』은 반이성주의의 주신정신을 숭배하고 주관적인 창조정신을 찬양하며, 예술가로써 자아정립과 자아표현에 매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郭沫若은 이러한 니체를 ‘낭만파’로 간주하였고¹³⁾, 郭沫若의 초기 문예관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문예도 봄날의 화초처럼 예술가의 내적심리의 표현’이라 여겼다. 시는 ‘문학의 원시세포’이고, ‘시를 이루는 중요한 것은 자아표현’이며, 시는 ‘순수함을 지닌 정서의 세계’로 공간예술(조형예술)과 시간예술(음악, 무도, 시가) 모두 정서의 표현이라 주장하였다. 그가 ‘시는 문학의 본질’이며, ‘문학의 본질은 리듬감 있는 정서의 세계’라 표현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표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郭沫若은 자신의 시를 “나의 시의 대부분은 반성격적인 시로, 니체와 유사하다”¹⁵⁾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郭沫若은 니체의 사상을 거침없이 흡수하였고, 낡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자 함이 주제가 되었던 그의 시들 속에서 이러한 니체사

13) 郭沫若, 「魯迅與王國維」, 앞의 책, 제10권, 313쪽.

14) 郭沫若, 「文學的本質」, 「文藝之社會的的使命」, 「三葉集」, 앞의 책, 제10권 참고.

15) 「致陳建雷狄的信」, 『郭沫若研究集刊』 2집, 四川大學, 1992, 178쪽.

상을 엿볼 수가 있다. 그의 많은 작품들 중 범신론이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天狗』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니체사상의 특정한 일면이 郭沫若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郭沫若은 니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雅言與自力』에서 “니체의 성격은 천재를 숭배하는 버릇이 있으며, 자신만의 이상을 개체로 받아들여 그 숭배의 욕망에 만족하고자 하였다”, “될수 있으면 가능한 선에서 반드시 비판적인 시각으로 원작을 부정하여야 원작의 생명력이 자신의 생명이 될 것이고, 또 작가의 심혈을 자신의 심혈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은 자신의 힘에 맡겨야지 타인을 의지해서는 안될 것이다.”¹⁶⁾라며 자신과 니체의 본질이 다름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시대요구와 사회환경의 차이는 郭沫若의 내적심리의 요구와 창조정신으로 하여금 니체와는 차별된 내용을 갖게 하였다. 니체는 제국주의시기 부르주아의 반이성철학가였지만, 郭沫若은 반제반봉건의 혁명민주주의 전사이자 애국자였던 것이다. 니체는 ‘개성의 독립’을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민주정치와의 대립에서 시작된 것으로 민주는 ‘군중’을 조장하여 ‘천재’를 억압한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와 이상 목표를 잃고 몰개성화·획일화되어 개성을 상실해가고, 또 소극적으로 노예화되어 대중을 이루어 개인의 자유의지 보다는 대중의 목소리와 집단의 힘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郭沫若은 그가 ‘군중’을 부정하면서 ‘개성의 독립’을 외치는 것을 사실상 반개성주의이자 반민주주의인 태도라 간주하였고, 이는 곧 郭沫若에게 니체철학이 ‘초인’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군중과는 적이 되는 역사비판주의자로 인식되었다. 郭沫若에게 있어서 니체의 극단적인 유심주의와 개인주의의 형식은 주관의지의 능동적인 작용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에 염증을 느낀 데서 발로된 무기력한 저주일 뿐이었다. 郭沫若은 니체철학의 ‘초인과 군중의 대립’의 관점을 버리고, 자신만의 민주원칙에 근거하며 니체의 ‘신노예주의¹⁷⁾’를 배제하였다. 그는 1958년 『雅言與自力』의 후기에 이렇게 서술하였

16) 郭沫若, 「雅言與自力」, 앞의 책, 제10권, 229쪽.

17) 니체는 도덕을 지배자들이 민중, 피지배자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신노예주의’는 강요된 도덕, 노예의 도덕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것은 주장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결과는 번역하지 않았다. 나는 사실 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중국혁명운동이 점차 고조될수록 이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아래로 끌어내려 보니 니체와 나는 상당한 거리가 생겨 있었다. 노신이 이 저서의 서설만을 번역하고 전서를 완역하지 않은 것 역시 나와 같은 이유였을 것이라 생각한다.”¹⁸⁾ 당시 郭沫若은 유물사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지만, 니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주의태도와 애국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견지하며 郭沫若은 무산계급의 집단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는 그의 마르크스주의의 내부 요인이 되었다. 郭沫若은 니체의 개성본위사상과 주관적인 창조정신을 문화비판적 관점과 문학적·예술적 관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였지만, 대중을 부정하는 초인의 비판적인 절망에 대하여는 그의 정치적 관점에서 비롯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3. 茅盾과 니체사상

중국현대문학의 또 다른 거장 茅盾은 니체를 포함한 외국문화사상에 대한 연구와 번역을 활발히 활동하며 문단에 입성하였다. 茅盾과 관련된 많은 논의 중에서 그의 니체철학과 외국문화의 이해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다. 우선 茅盾의 니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 그의 20년대 전후의 번역성과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니체는 茅盾이 청년시기 흥미를 가졌던 철학자 중 하나로, 1917년 『學生雜誌』에 발표한 사회논문 첫 편 『學生與社會』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解放與改造』에 니체의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중 비판적 성격이 가장 농후했던 두 장 「새로운 우상」과 「시장의 파리」를 번역하고, 서언에 “대문호 니체의 필체는 예리하고 핵심을 찌르며 상식을 지니고 있다. 그의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문학저서 중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책이라 말할 수 있다.”¹⁹⁾며 니체의 사상을 높이 평가 하였다. 1920년, 茅盾은 또 장편저서

18) 郭沫若, 앞의 책, 제10권, 75쪽.

『尼采의學說』을 집필하였고, 이는 『學生雜誌』 제7권에 4기로 나누어 게재되었는데, 「序言」, 「尼采戰傳略及著作」, 「尼采의道德論·上」, 「尼采의道德論·下」, 「進化論의尼采」, 「社會學的의尼采」, 그리고 「結論」 모두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니체의 생애와 사상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당시 니체에 대한 중국의 연구 성과 중 최고의 수준에 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現在文學家的責任是甚麼?』와 『霍普特曼與尼采哲學』의 번역문 중, 니체와 관련된 논의도 소개하였다. 그 후 그가 만년에 쓴 『回憶錄』에서도 자신이 소개한 니체와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茅盾도 郭沫若과 마찬가지로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연이어 니체에 관련된 글들을 실을 정도로 니체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사상해방의 요구’가 절실하였던 茅盾은 니체의 ‘맹렬한 필체로 낡은 전통사상을 공격’하였던 부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니체가 가치없이 비판하였던 ‘시정 모리배 철학’은 당시 중국사회의 만연해 있던 ‘시정 모리배 사상과 작풍’을 염려한 중국신문학의 선구자로서 온 힘을 다하여 니체사상을 소개하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게 하였다²⁰⁾

郭沫若과 비교할 때 茅盾은 의식적으로 마르크스주의사상을 접한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니체에 대한 이해가 어찌면 郭沫若보다는 훨씬 전면적이고 비판적 태도 또한 분명하였을 것이다. 니체학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만의 엄격한 잣대로 자신만의 근본적인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리가 니체를 우상화하지 않는다면, 또 그의 사상을 세상의 이치라 여기지 않고 이를 의심하고 비평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귀로 눈을 대신해서는 안될 것이다.”²¹⁾, “니체를 따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니체를 외면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니다!”²²⁾, “니체의 저서를 읽으면서 유용한 것과 이로운 것을 분별해 낼 줄 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니다”²³⁾ 등의 원칙 안에는

19) 1919年, 6月 「新偶像·前言」, 『解放與改造』 제1권 6호.

20) 顧國柱, 「窮本溯源取精用宏-茅盾如何看待尼采哲學」, 『上海財經大學學報』 2004 참고.

21) 1920년 1월 「尼采의學說·引言」, 『學生雜誌』 제7권 1호.

22) 1920년 2월 「尼采의學說·尼采의道德論上」, 『學生雜誌』 제7권 2호.

혁명가의 지략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니체학설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자기모순의 글 역시 적지 않다”²⁴⁾고 지적하며, 니체가 “평민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민의 능력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혼자만의 이상을 꿈꾸고 있었을 뿐이다”²⁵⁾, “그가 대문호이고, 또 그의 글이 사람을 격동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니체의 저서를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늘 비판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하되, 그의 글들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²⁶⁾라고도 당부하였다. 그는 또 우리가 “높이 평가할 것은 높이 평가하고, 공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격해야 할 것이다”²⁷⁾, “선인의 학설에 결점이 있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후대사람들이 그의 결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의 뛰어난 점만을 드러내어 이를 발양시키는 것이야말로 후대사람들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²⁸⁾라며 선택적으로 니체의 사상을 수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이러한 글들에서 알 수 있듯이 茅盾은 “지극히 냉정한 두뇌와 공정한 시각”으로 니체를 평가하였는데, 바꾸어 말하자면, 이는 변증유물론과 역사유물론의 태도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니체는 “인류의 악이며, 가장 공포스러운 인물”이라 평하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니체사상이 지닌 “형이상학적 상식들은 매우 뛰어나서 몇 가지의 진리 또한 내포하고 있음”²⁹⁾을 알리기도 하였다. 즉 茅盾은 합리적이고 선택적인 방법을 통해서 니체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체의 가치를 새로이 평가’한다는 이론, 그리고 ‘초인론’과 ‘권력의지론’은 니체의 사상을 대표하는 핵심이다.³⁰⁾ 茅盾은 5.4시기 새로운 도덕을 세우고, 낡은 구도덕을 반대하며, 신문학을 제창하고 구문학을 반대한다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근거하여, 니체의 낡은 전통에 강력히 대항하고자 했던 반항정신

23) 위의 책과 같음.

24) 1920년 1월 「尼采의學說·引言」, 『學生雜誌』 제7권 1호.

25) 위의 책과 같음.

26) 위의 책과 같음.

27) 1920년 4월 「尼采의學說·社會學的尼采」, 『學生雜誌』 제7권 4호.

28) 1920년 1월 「尼采의學說·引言」, 『學生雜誌』 제7권 1호.

29) 1920년 4월 「尼采의學說·社會學的尼采」, 『學生雜誌』 제7권 4호.

30) 1920년 1월 「尼采의學說·引言」, 『學生雜誌』 제7권 1호 참고.

을 특히 높게 평가하였다. 니체는 자본주의사회의 허위와 죄악을 폭로하며, ‘모든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과거의 낡은 모든 이상과 전통을 철저히 파괴하고 모든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였다.³¹⁾ 이것은 茅盾의 ‘전통사상에 반대하고 사상해방을 요구’하는 주장과 상통한 관점으로, 茅盾은 “니체사상의 탁월한 부분”, “니체 최대의 혹은 최고의 견해”라 극찬하며, “철학의 모든 학설과 사회의 모든 신조, 그리고 모든 인생관, 도덕관을 새로이 재평가하고”, “대대로 전해오는 신조를 말끔히 없애어 향후 절대적 진리라 여길 것들을 근본적으로 동조시켜야 한다”고 하였다.³²⁾ 이와 같은 니체에 대한 선택적 수용은 5.4시기의 반제반봉건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茅盾은 또 “역사적 전통과 기형적이고 고질적인 낡은 도덕을 재고하는 무기로 삼아 모든 가치를 재평가하여 다시금 새로운 도덕을 창조해내야 한다”³³⁾고도 주장하였다.

茅盾과 니체는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기초, 그리고 도덕적 신념이 다르다. 니체는 인류의 도덕을 주인과 노예의 도덕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강자의 도덕, 후자는 약자의 도덕으로 규정짓고, 주인의 도덕성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강자의 선은 강한 의지가 기준이 되며, ‘선함’은 강하고 힘이 넘치고, ‘악함’은 반대로 나약하고 소심한 것으로, 니체의 기준에서 볼 때 주인의 도덕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었다. 茅盾은 니체가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념의 근본적인 대립을 지적해낸 것은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 가치 비평은 매우 좋지만, 도덕적 추세의 단언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³⁴⁾며, 강자의 도덕은 숭고하고 위대하여 약자를 지배하기 합당하다고 보는 도덕적 가치 기준을 비판하였다. 茅盾은 중국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군주는 억압으로 군림하며 인민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인민은 “자신도 모르게 이에 순응하게 되는”³⁵⁾과정이라 되풀이 되어 수천년 간 노예도덕을 만들어 냈으니, 이러한 낡은 도덕을 철저히 파멸시켜

31) 1920년 3월 「尼采의學說·進化論의尼采」, 『學生雜誌』 제7권 3호 참고.

32) 1920년 1월 「尼采의學說·引言」, 『學生雜誌』 제7권 1호참고.

33) 1920년 2월 「尼采의學說·尼采의道德論上」, 『學生雜誌』 제7권 2호.

34) 1917년 12월 「尼采의學說·尼采의道德論上」, 『學生雜誌』 제4권 12호.

35) 1920년 2월 「學生與社會」, 『學生雜誌』 제7권 2호 참고.

민족을 각성시키고 새로운 도덕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강자의 임무라 여겼다. 니체가 부정한 낡은 도덕이 부르주아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민주와 자유에 대한 부정이었다면, 茅盾은 중국의 어두운 현실에 처한 혁명민주주의자로서의 봉건 예교와 전통 관념에 대한 부정이었다.

니체의 ‘초인론’ 역시 茅盾이 주목한 대상이다. 니체는 도덕을 지배자들이 군중, 피지배자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니체는 강요된 도덕, 노예의 도덕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람을 ‘초인’이라 불렀다. 니체는 당시 유럽 사회가 이미 수명이 다한 낡은 봉건주의잔재와 낡은 가치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목표를 잃고 방황한다고 보았다. 니체는 이러한 군중사상의 각성과 역량의 발전은 오히려 초인의 성장에 방해와 위협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였고, 茅盾도 魯迅처럼 “인간은 늘 선인들을 뛰어넘으려 한다”는 시각에서 니체의 초인론을 받아 들였다. 여기에 니체의 명언이 있다. “유인원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단지 가소롭고 수치스러운 동물일 뿐이다. 초인에게 사람 역시 이리하다. 역시 가소롭고 부끄러운 동물일 뿐이다. ……오래 전 당신들도 유인원이었지만, 지금의 인류는 어떠한 유인원보다 더 유인원스럽다.”³⁶⁾ 니체는 이처럼 격렬한 비판으로 인류의 자아를 부정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초인에 대한 숭배사상을 거침없이 드러내었다. 茅盾은 “초인철학을 크게 보고 작은 부분을 논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며 이는 “그가 숭배한 초인은 진보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³⁷⁾ 茅盾이 니체의 초인철학을 수용한 것은 바로 초인사상이 사회의 퇴폐적이고 봉건잔재의 낡은 기운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茅盾은 막대한 규모로 중국 사회를 묘사한 장편소설『子夜』에 바로 이러한 니체식의 기운을 담아 내어 초인의 목표를 정립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중국 사회를 조망하며 세계를 알려주고자 하였다.

36) 프리드리히 니체, 백문영 옮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해원출판사, 1990.

37) 1920년 2월 「尼采의學說 · 尼采의道德論下」, 『學生雜誌』 제7권 2호.

茅盾은 또한 “안이함을 꿈꾸며, 점점 길들여진 가축으로 변해가는” 니체가 지적한 시대적 ‘정신병상’을 강조하였다.³⁸⁾ 그는 눈앞의 안일함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을 향해 통탄을 감추지 않고, 불합리한 폭정을 피하기만 하고 대항할 줄 모르는 “민족기질의 쇠퇴는 이미 극에 달했다”고 느끼며 니체의 초인설에 기대어 우매한 국민성을 개조해 보기를 바라였다. 그는 니체의 “환경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물질구조를 개선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생을 구하라”는 설법과 인류는 진보해야 하며, “초인에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³⁹⁾ 이는 5.4시기 낡은 사회를 철저히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茅盾은 니체철학의 초인설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현자를 지배자로 우매한 자를 피지배자”로 여기는 사회관에 대해서는 시종 분명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해야 하지만, 진보라는 것이 반드시 경쟁-약육강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며 “강자가 초인이 되어야 한다면 이에 반드시 약자를 희생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크나큰 착오이다.”라고 지적하였다.茅盾은 더 나아가 “니체가 해를 주는 것은 그의 이상이 아니라,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이다!”⁴⁰⁾며 어떠한 사회적 다위니즘(진화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권력의지설’은 초인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니체의 ‘권력의지설’에 대한茅盾의 이해방식 역시 큰 차이가 있다. 니체는 가장 강인하고 가장 고상한 생명 의지는 늘 만족할 줄 모르는 생존의 몸부림이 아니라 전투의지, 즉 권력 의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이roso 비롯되는 사상적 행위는 모두 합리적이고 위대하다고 보았다. “인류 생활에서 가장 강한 의지는 바로 ‘권력을 향한’ 것이지 목숨을 애걸하는 것이 아니다.”는 니체의 말에茅盾은 “인류가 ‘권력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노예가 되어 그럭저럭 되는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강자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해방과 자유를 요구하는 것 모두 이로

38) 1920년 3월 「尼采의學說·進化論의尼采」, 『學生雜誌』 제7권 3호 참고.

39) 위의 책과 같음.

40) 1920년 2월 「尼采의學說·尼采의道德論上」, 『學生雜誌』 제7권 2호.

부터 출발할 것이다. 목숨을 구걸하는 데만 그친다면 개나 돼지의 삶과 다를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원하는 생활개선은 무엇이란 말인가?”며 동의표를 던졌다.⁴¹⁾ 茅盾은 권력의지를 피지배자인 민중이 강자의 권력에 맞서 해방을 요구하고 자유의 의지를 요구하려는 의지로 이해하였다.

또 한편으로 茅盾은 “니체가 지나치게 강자의 권력을 선양하고, 이를 인류 진화의 단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⁴²⁾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니체의 “대다수의 평범한 인민을 몰아세워” 금자탑 꼭대기의 하나의 돌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비판하며, “인류의 운명 중 가장 비관적인 것은 지상의 권력을 일인자에게 부여하는 일”이라는 사상은 “현재의 데모크라시의 외침에서 이런 말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고도 비판하였다.⁴³⁾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5.4시기 茅盾이 소개한 니체는 그의 반제반봉건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茅盾이 니체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 중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는 반면, 부정 속의 긍정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는 니체가 “항상 예술을 시점으로 과학을 이해했고, 인생을 시점으로 예술을 이해했다”⁴⁴⁾는 점은 자신의 예술성향과 흡사하다고 생각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니체의 ‘오류의 근본’을 냉철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⁴⁵⁾ 긍정이든 부정이든 茅盾은 한 가지 희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바로 니체의 사상이 민심을 자극하여 낙약한 중국의 민족성을 전투정신으로 바꾸어 놓아 세계민족의 대열에 우뚝 서기를 염원하였다. 茅盾은 넓은 시야로 자신이 필요한 사상을 외국문화로부터 흡수하고 수용한 작가로 니체사상이 그에게 끼친 영향은 지극히 이로운 측면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茅盾의 니체사상에 대한 이해는 외국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던 범례로 꼽히고 있다.

41) 1920년 3월 「尼采의學說·進化論의尼采」, 『學生雜誌』 제7권 3호 참고.

42) 위의 책과 같음.

43) 1920년 4월 「尼采의學說·社會學的의尼采」, 『學生雜誌』 제7권 4호.

44) 1920년 1월 「尼采의學說·引言」, 『學生雜誌』 제7권 1호.

45) 1920년 4월 「尼采의學說·社會學的의尼采」, 『學生雜誌』 제7권 4호.

Ⅲ. 나오는 글

5.4운동 전후, 중국으로 홍수처럼 밀려든 외국사조는 중국사상계의 면모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젊은 지식인들은 ‘구국구민’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품고 서양사상을 흡수하여 거대한 하나의 사회 사조를 형성하였고, 한 세대의 사상발전의 추세를 이끌어 나갔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니체는 하이데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수용된 독일 철학자이다. 기존 종교에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던 니체가 현재까지도 인정을 받는 것은 개인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니체의 개인주의의 영향은 20세기 초 중국에게도 예외일 수 없었다.

20세기 초 중국은 니체를 수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방식을 갖는다. 5.4 시기 전후 중국 신문학 작가들을 대표하는 郭沫若과 茅盾은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또 그들의 이데올로기관과 사상관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니체를 이해·수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니체는 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郭沫若은 니체사상 중 낡은 봉건사상과 전통을 무너뜨리고 부국강병을 취할 수 있는 관점을 선택하고 수용하였고, 니체의 자아발견과 개성해방, 그리고 현실에 대항하는 초인론의 관점을 받아들여 5.4시기 이상적인 니체상을 창조하였다. 그가 니체로부터 이해한 ‘우상파괴’와 구도덕반대, 개성발현이라는 명제는 니체의 ‘주관적인 창조’ 사상을 빌어 시로써 승화되었다. 그러나 郭沫若은 니체사상의 특정한 일면을 받아들인 반면, 니체를 극단적인 역사비관주의자로 간주하고, 그의 극단적인 유심주의와 개인주의의 형식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郭沫若은 니체철학의 ‘초인과 군중의 대립’의 관점을 버리고, 자신만의 민주원칙에 근거하여 현실주의태도와 민주주의 정신을 견지하였다.

茅盾은 郭沫若에 비해 훨씬 분명한 마르크스 사상으로 니체를 접하였다. 그는『尼采的學說』을 통해 니체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자신만의 근본적인 원칙과 엄격한 잣대로 니체를 평가하였다.

茅盾은 니체의 핵심 사상인 ‘초인론’과 ‘권력의지론’에 주목하고, 진보적인 인간의 의지를 담아낸 초인상과 강자의 권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권력에의 의지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는 5.4시기 모든 가치관, 도덕관을 새로이 재평가해

야 한다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근거하여, 니체의 낡은 전통에 철저히 대항하고자 했던 반항정신을 특히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의 낡은 우상과 전통을 철저히 파괴하고 모든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였던 니체의 사상은 茅盾의 '전통사상에 반대하고 사상해방을 요구'하는 주장과 상통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茅盾은 니체와 다른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강자가 초인이 되어야 하고 또 진화론적 입장에서 지나친 강자의 권력을 주장한 니체의 '초인론'과 '권력의지론'의 일면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郭沫若과 茅盾의 니체에 대한 선택적 수용은 5.4시기 낡은 사회를 철저히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며, 반제반봉건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니체에 대한 이해는 문화비판적 혹은 도덕적 관점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한 니체사상의 이해에 크게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郭沫若과 茅盾이 니체를 수용함에 있어서 만들어낸 그들만의 니체상과 이들의 유사성과 차별성 또한 살펴보았다. 니체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방식은 郭沫若과 茅盾의 각각의 관점에 따라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인다. 郭沫若과 茅盾은 니체사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용방식에서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문화비판적 시각으로 낡은 전통과 낡은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과 도덕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데 동의하며 니체의 도덕론과 초인론을 적극 수용한 점과 혁명가로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니체를 부정하고 비판한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郭沫若이 문학적·예술적 시각으로 니체의 주관적인 창조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수용한 데 있어서 茅盾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茅盾과 郭沫若이 니체를 접하고 니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용상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합리적이고 선택적인 방법을 통해서 니체의 사상을 수용하였음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郭沫若과 茅盾 등의 대대적인 전파로 당시 중국문단에서는 니체의 사상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고, '자유의회'나 '지혜로운 용기', 그리고 '진리추구'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은 니체사상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⁶⁾

46) 위의 책과 같음.

❖ 참 고 문 헌

- 프리드리히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백문영 옮김, 서울, 해원출판사, 1990.
- 김상환 외, 『니체로 본 100년』, 서울, 민음사, 2000.
- 김진석,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개마고원, 2009.
- 이주노, 「魯迅과 近代思想」,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 제23호, 2002.
- 郭沫若, 『郭沫若文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 茅盾, 『茅盾全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1.
- 秦川, 『郭沫若評傳』, 重慶出版社, 1993.
- 閔抗生, 「郭沫若與 尼采---走向21世紀的探索——回顧·思考·展望」, 『江蘇省外國文學學會刊』, 1999.
- 殷克琪 著, 『尼采與中國現代文學』, 洪天富 譯,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0.
- 郇元寶, 『尼采在中國』,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1.
- 顧國柱, 「穷本溯源取精用宏-茅盾如何看待尼采哲学」, 『上海财经大学学报』, 2004.

❖ ABSTRACT

The 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Philosophy of Nietzsche:
Focusing Acceptance of the Nietzsche's Philosophy on Guo Mo Ruo
and Mao Dun

Ko, Hae-kyung

Nietzsche in the early 20th century, many Western thought came to China pushed the time, who want to reform the Chinese young intellectuals was a great welcome.

Around 5.4 times writers representing China Journalism Guo Mo ruo · Mao Dun and social needs of the times according to the spirit, according to their ideology, no tubes and four optional understand Nietzsche. Was acceptable, in the process, Nietzsche was transformed hem into various forms. In this paper, two Guo Mo ruo · Mao Dun accept Nietzsche as Nietzsche socreated their own awards and also looked at the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

Nietzsche Guo Mo ruo the remnants of the old feudal ideas and traditions were to break down and accept only select perspective. Nietzsche's self-discovery and individual liberty, and against the reality and accept the terms of loan 5.4 seconds, an ideal Nietzsche award was created. However Guo Mo ruo particular aspect of the acceptance of Nietzsche, whereas Nietzsche regarded as an extreme pessimist history, and his extreme caution and idealistic form of individualism was often criticized.

Mao Dun the core ideas of Nietzsche 'Superman' and 'will power' noted. 5.4 All time view of life, a new morality must re-evaluate the need for a practical, based on the old tradition of Nietzsche completely against the spirit of rebellion was to have especially appreciated. But this was different Mao Dun Nietzsche and moral beliefs. What is the old morality Nietzsche corrupt, bourgeois morality and ethics, and was negative for democracy and freedom, Mao Dun dark realities facing the old Chinese feudal and traditional idea of revolution as a democrat were negative for.

Guo Mo ruo · Mao Dun optional for Nietzsche's acceptance was 5.4 times that contemporary needs can be met.

Key Words

Guo Mo Ruo, Mao Dun, Nietzsche's philosophy, Individualism, Superman theory
郭沫若, 茅盾, 니체철학, 개인주의, 초인론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